

비티엔

September 2011

Emerging Market Daily*

인도 외국계 은행, 지점 확대에 제동이 걸리다

September 15, 2011

인도 외국계 은행, 지점 확대에 제동이 걸리다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¹⁾

인도 외국 은행의 시장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 은행의 신규 지점은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09년부터 지점 승인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1년 들어서면서 대형 은행에는 외국은행의 신규 지점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인도에 첫 발을 들여거나 인도에 지점이 몇 없는 은행 2~3 곳만 지점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로 올해 초 Zurich-based Credit Suisse 첫 은행 지점 개설에 대한 RBI 승인과 6월에 Australia and New Zealand(ANZ)의 지점 개설이 있었을 뿐이다.

참고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해, 인도는 매년 최소 외국계 은행 12개 지점을 허용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한 지점은 18개월 전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나, RBI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을 인도 경제 전문지 Business Standard에서 말했다.

표: 인도 외국 은행 지점 현황 (2011년 8월 기준)

Foreign Banks	Branches Opened			Total Branches
	2009	2010	2011*	
Standard Chartered Bank	4	Nil	Nil	94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HSBC)	Nil	3	Nil	50
Citibank	2	Nil	Nil	42
Royal Bank of Scotland	Nil	Nil	Nil	31
Dkeutsche Bank	3	2	Nil	15
DBS Bank	4	2	Nil	12
Barclays Bank	1	2	Nil	9

자료: Business Standard

1) 비티엔 대표자 김응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지역 수출자문위원, 서울산업 통상진흥원 사이버 인도 컨설팅 상담위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ITxperter로 활동하는 인도 전문가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 통상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음.

인도의 주요 외국은행 지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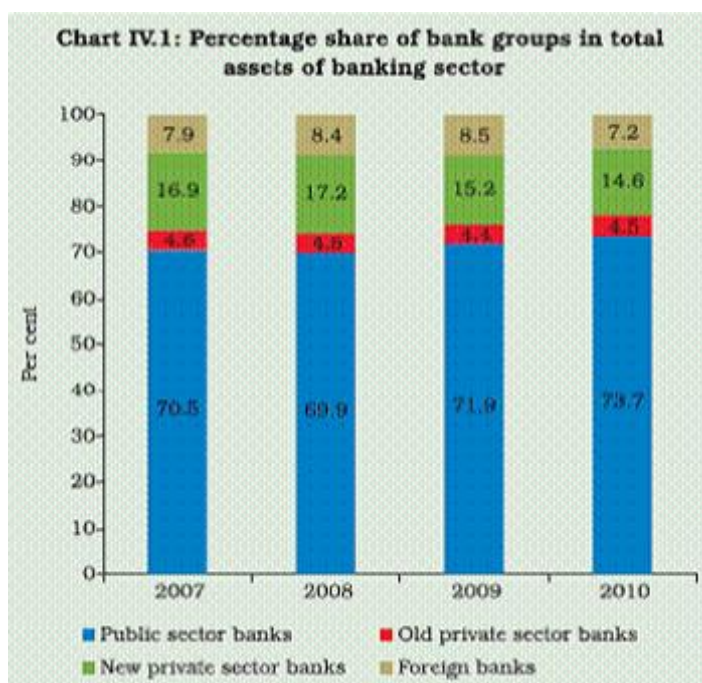
2010년 기준으로 인도에는 34개의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상위 7개 은행이 외국계 은행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신한은행도 인도 뭍바이, 델리, 벨로르 3개 지역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7개 인도 외국계 은행으로는 Standard Chartered Bank, Hongkong&Shanghai Banking Corporation(HSBC), Citibank, Royal Bank of Scotland, Deutsche Bank, DBS Bank, Barclays Bank가 있다. 이 중 Standard Chartered Bank는 인도에 94개 지점이 있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작년부터 신규 지점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를 이어 50개 지점을 보유한 Hongkong&Shanghai 은행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3개 지점만 개설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점을 열지 못했다.

인도 상업은행 구조

인도 상업은행은 국영은행, 민영은행 그리고 외국계 은행의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영은행은 21개, 민영은행은 23개, 외국계 은행은 34개가 있다.

그림: 인도 은행 분야별 점유율 (2007~2010)



자료: RBI

2010년 기준으로 인도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 시장에서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은행이 19.4% 그리고 외국계 은행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7.9%에서 7.2%로 다소 감소한 상태이다. 이는 2008년~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도의 외국계 은행 개방화 및 규제 조치

인도는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계 은행 진출을 규제해 왔으며, 1991년 시장 개방화 조치 이후로 단계 별로 금융 산업을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2005년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인도 진출 안을 발표했으며, 1단계로는 지점설치, 100% 출자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그리고 민간은행에 지분 취득을 74%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초 RBI는 외국계 은행 개방화 조치 방안을 추가로 공표하였다. 현재 외국계 은행은 100% 출자 자회사일 경우는 자국 은행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인도 민영/국영 기업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경우 현재 외국계 은행은 기업 여신 업무에서 소매 금융업 업무로 사업 전환 및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출 업무를 통해 보다 더 수익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움직임

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이 복잡한 금융 상품을 대량 판매하고 있어서, 인도 RBI 내에서 신규 지점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RBI에서 공식입장을 낸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신규 규제가 발생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RBI: Annual Report

Business Standard : Foreign bank pause branch expansion, 2011년 8월 31일자